

KMI 동향분석

VOL.176
2020 FEBRUARY

발간년월 2020년 2월(통권 제176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최성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글로벌 수산물 소비 구조 변화 고려,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한기욱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아다에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상권 센터장
(sglee@kmi.re.kr/051-797-4597)
수산정책사업본부 임경희 본부장
(imkh@kmi.re.kr/051-797-4591)

지난 60년간(1961~2017년) 글로벌 수산물 소비는 연평균 3.1%의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증가율(1.6%)보다 빠르며, 단백질 섭취원 중에서는 가금류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글로벌 수산물 소비 성장의 ‘내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세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은 ‘식량안보’가 우려되는 아프리카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수산물 소비는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인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장의 소비량 감소는 향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에 있어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70개국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Keyword Analysis)과 글로벌 출시 제품 DB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산식품 소비는 세계 공통적으로 ‘건강(Health)’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되고 있는 제품 역시 이미 첨가물 및 보존제 미첨가(No Additives/Preservatives)를 강조하는 마이너스(Minus) 소구점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소비자 관점(‘건강’)에서의 제품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북미 지역에서 수산식품 소비와 관련하여 ‘식이요법(Diet)’을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아 향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을 선점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해조류는 글로벌 뉴스 상에서 언급되는 빈도가 매우 높아 향후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성장이 예상되는 해조류 시장에서 김의 영문명 표기(GIM)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점자 이점(First Mover)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점자 이점은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은 세분되고 있으며 소비규범이 고도화되고 있다. 대륙별 소비시장은 각기 다른 지리, 문화, 경제 요인으로 차별화된 시장을 지니면서도, 공통적으로는 소비규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속 가능성 등의 ‘윤리’ 소구점은 초기 유럽을 중심으로 강조되었으나 현재는 북미, 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필수적인 대응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잠재 시장(국가 및 품목) 발견을 위해서는 장기 소비 추세를 통해, 잠재력 있는 소비자의 ‘양’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제품의 ‘질’적인 경쟁력을 위해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가공’, ‘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기반한 소구점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고도화되고 있는 소비규범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현대의 소비는 ‘가격’, ‘품질’ 외에도 ‘윤리’ 등 높아진 소비규범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제품 개발의 방향 설정은 최우선 과제이며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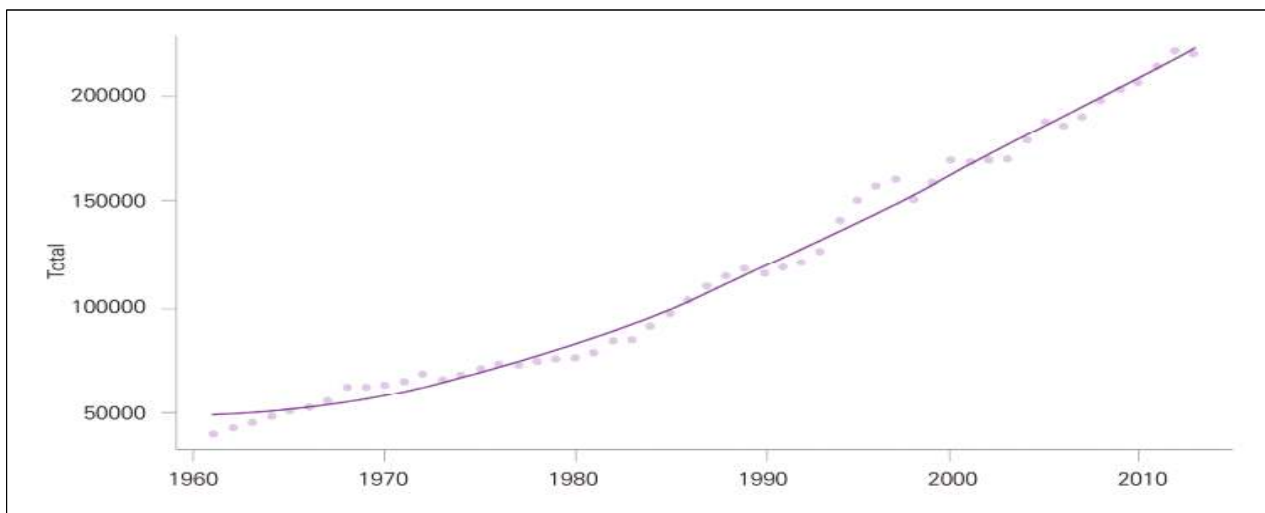
선진국 중심 수산물 소비 시장 성장 둔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글로벌 수산물 소비, 꾸준한 증가세

- 수산물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비자에게는 영양 공급 및 식품 소비의 다양성 측면에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임
- 지난 60년간(1961~2017) 연평균 수산물 소비(3.1%)는 인구 증가율(1.6%)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단백질 섭취원(2.7%) 중에서는 가금류(4.7%)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함¹⁾
- 이러한 소비 확대는 수산물 생산 증가를 비롯하여 소득 증가, 가공 산업 및 콜드 체인 등의 유통 산업 발전에 기인함.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 증대는 현 수산물 소비를 지속해서 증가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본 분석에서도 성장 모형(Gompertz Model)을 통해, 글로벌 수산물 소비 증가 추세(1961-2013)를 살펴보았으며, 제품 수명 주기설(Product Life Cycle)²⁾ 상에서 '성장 국면(Growth Phase)'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글로벌 수산물 소비 성장 추세

(단위: 천 톤)



주 : 주요 성장 모형 중(Exponential, Gompertz, Logistic, Log-logistic, Weibull),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된 Gompertz 모델을 활용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1)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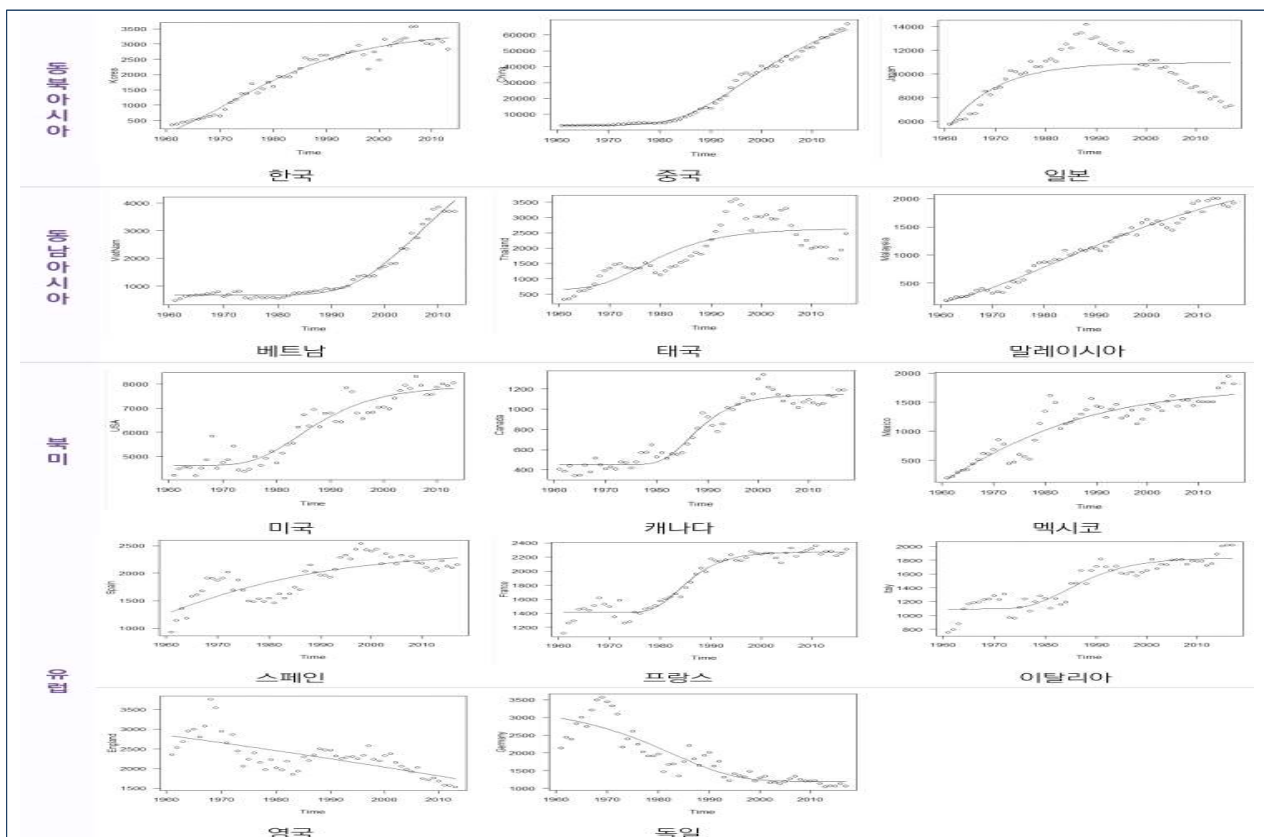
2) E. Cox. 1967. 「Product Life Cycles as Marketing Models」

■ 국가별 수산물 소비, 개발도상국은 '증가', 선진국은 '정체 또는 감소'

- 국가별 수산물 소비 시장의 성장 추세는 지리, 경제, 그리고 문화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나, 뚜렷한 소비 성장 패턴이 발견됨³⁾
- FAO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선진국의 수산물 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성장 모형을 통해 추세를 살펴본 결과, 동북아시아의 경우 중국 '성장', 한국 '정체', 일본 '감소', 동남아시아는 베트남·말레이시아 '성장', 태국 '감소', 북미는 미국·멕시코 '정체', 캐나다 '감소', 유럽은 프랑스·이탈리아 '정체', 스페인·영국·독일은 '감소' 양상을 보임
- 태국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국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FAO(2020)와 유사한 성장패턴이 발견됨

그림 2. 국가별 수산물 소비 성장 추세

(단위: 천 톤)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3)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수요기반' '공급'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글로벌 소비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글로벌 수산물 소비의 증가세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수산물 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득 수준은 높으면서 자국 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유럽은 'SUCCESS' (Strategic Use of Competitiveness towards Consolidat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European Seafood sector) 등의 프로젝트⁴⁾를 통해 자국 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90년대부터 수산물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는 일본 등의 국가는 브랜드 활성화 등⁵⁾을 통해 자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더불어, 저렴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주도하던 동남아시아는 이제 프리미엄 수산식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글로벌 수산물 소비 트렌드' 이해를 통한 STP 전략 수립이 요구

- 수산물 소비 패턴이 다원화되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 주기도 짧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에 기반한 '공급' 전략 수립이 우선 시 됨
-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을 세분화하고(Segmentation)하고 성장하는 목표 시장을 선정(Targeting)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를 분석하는 '양'적인 접근과 동시에 '트렌드'를 분석하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리나라 수산식품 산업의 장기 육성 계획 수립과 수출 증대에 있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EU, 「SUCCESS Project」, <http://www.success-h2020.eu/>

5) KMI, 2019,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수산물은 '건강식품, 최근 해조류 부상'

■ '건강(Health)'은 글로벌 수산식품의 최우선 도출 키워드

-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2018년 1월 ~ 2020년 5월) 글로벌 뉴스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및 대륙별 키워드 분석(빈도)을 수행함⁶⁾
- 건강(Health)이 글로벌 수산물 소비 관련 최우선 키워드로 도출된 가운데, 단백질(Protein), 식이요법(Diet) 등이 상위 키워드로 도출됨. 특히 수산식품 소비와 관련하여 식이요법(Diet) 관련 키워드는 유럽, 북미 지역에서 상위권으로 등장함
- 이 외에도 글로벌 최상위 수산식품 소비 품목인 참치(Tuna), 연어(Salmon), 새우(Shrimp) 등의 명칭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수산물 요리 형태(Sashimi, Sushi, Pasta), 인증(MSC) 등 다양한 종류의 키워드가 도출됨

■ '해조류(Seaweed)', 주요 소비 키워드로 부상

-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참치, 연어, 새우)을 중심으로 높은 키워드 빈도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많지 않은 해조류가 상위 키워드를 차지하는 특징을 엿볼 수 있음
- 이는 해조류가 최근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심은 향후 소비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COVID-19 이후, '안전'·'가공'·'편의'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등장

- 코로나 이전에는 단백질, 식이 요법, 설탕, 비타민 등 주로 영양성분에 대한 키워드가 많음
- 코로나 이후에는 바이러스, 안전, 가공, 편의, 지속가능성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등장하였으며, 질병 이슈는 장기 보존 가능 안전 가공품에 대한 수요를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음

6) 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그림 3.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상위 100개 키워드

Top1~25		Top26~50		Top51~75		Top76~100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건강(health)	46,860	파스타(pasta)	6,620	바비큐(barbecue)	2,668	도미(snapper)	1,364
참치(tuna)	30,958	오징어(squid)	6,574	타이유니온(Thai_Union)	2,606	산(acidity)	1,346
연어(salmon)	24,068	비타민(vitamin)	6,518	넙치(halibut)	2,560	무슬림(muslim)	1,322
새우(shrimp)	18,806	채널(channel)	6,204	지방(fat)	2,540	짧은꼬리오징어(bobtail_squid)	1,298
단백질(protein)	15,176	대구(cod)	6,050	통조림(can)	2,458	제재(lockdown)	1,276
식이조절(diet)	13,564	스테이크(steak)	5,732	감염(infection)	2,356	전채(appetizer)	1,252
바닷가재(lobster)	11,234	유전자(gene)	5,712	전복(abalone)	2,326	유행(fad)	1,236
플라스틱(plastic)	11,074	코로나19(covid)	5,158	증명서(certificate)	2,290	식물(vegetation)	1,202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11,052	고등어(mackerel)	4,952	가자미(brill)	2,120	토르티야(tortilla)	1,18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11,006	MSC	4,572	채식(vegan)	2,116	IUU	1,180
안전(safety)	10,916	가리비(scallop)	4,442	멸치(anchovy)	2,000	알레르기(allergy)	1,176
채소(vegetable)	10,376	스낵(snack)	4,164	스튜(stew)	1,998	FAO	1,168
굴(oyster)	10,194	라면(ramen)	4,112	틸라피아(tilapia)	1,954	수산물 무역(seafood_trade)	1,154
해조류(seaweed)	9,994	조류(algae)	3,990	NOAA	1,878	MSG	1,146
위기(crisis)	9,678	식품 안전(food_safety)	3,912	바이러스(virus)	1,872	메기(pangasius)	1,116
샐러드(salad)	8,986	온실 가스(greenhouse_gas)	3,726	도다리(flounder)	1,802	방부제(antioxidant)	1,112
튀김(chip)	8,910	문어(octopus)	3,582	급식(foodservice)	1,768	수산물_지속가능성(seafood_sustainability)	1,102
초밥(sushi)	8,178	살코기(fillet)	3,530	키토(keto)	1,734	세비체(ceviche)	1,094
당(sugar)	8,080	타코(taco)	3,484	요리법(cuisine)	1,690	회(sashimi)	1,092
샌드위치(sandwich)	7,764	해산물 시장(seafood_market)	3,090	키트(kit)	1,678	채식주의자(vegetarian)	1,060
게(crab)	7,730	명태(pollock)	3,080	안락 음식(comfort_food)	1,674	글루텐(gluten)	1,040
스프(soup)	7,462	향(flavour)	3,038	크래커(cracker)	1,552	수산식품 가공(seafood_processing)	1,040
관세(tariff)	7,378	장어(eel)	2,920	독소(toxin)	1,524	덤섬(dim_sum)	1,034
오염(pollution)	7,156	물류(logistics)	2,846	선호(preference)	1,446	푸드트럭(food_truck)	1,020
피자(pizza)	7,068	맛(taste)	2,748	미식가(gourmet)	1,414	어분(fishmeal)	1,004

주1 : 70여국의 글로벌 뉴스(News API) 및 수산 전문 뉴스(Seafood source, Undercurrent news 등), 리포트(Seafood source 보고서) 등 텍스트 형태의 수산 소비 관련 데이터를 추출(52,086개 문서)하여 키워드 분석을 시행함

주2 : 대륙별 시장은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로 수산물 소비 상위국을 대상으로 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 품목별 수산식품 소비,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각 키워드의 맥락을 추정하는 연관어 분석(Word2vec)을 수행하였는데, 각 품목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키워드 등이 도출됨
- ‘참치’는 소비의 다양성에 기인하여 참치 플레이크를 비롯하여 크래커, 오일, 파우치 등 폭넓은 키워드가 등장함
- ‘고등어’는 사료 관련 연관어가 상위권, 단 성분 등 ‘효능’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를 보임
- ‘넙치’는 회 또는 초밥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함
- ‘삼치’는 수프, 두부, 훈통 등이 상위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굴’은 ‘경험’, ‘오락’ 등이 함께하는 품목, 단 ‘안전 이슈’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전복’은 한국, 일본 등지에서 주로 소비되는 ‘고급’ 식재료로 분석됨
- ‘오징어’는 다양한 소비 활용도로 관련 요리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등장함
- ‘김’은 주로 ‘스낵’ 형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나, 김밥, 주먹밥 등 다양한 응용 요리가 상위권으로 등장함
- ‘어묵’은 ‘맛’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음
- 이처럼 품목별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한 제품 R&D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품목별 연관 상위 20개 키워드(참치, 김)

순위	키워드	유사도	순위	키워드	유사도	순위	키워드	유사도	순위	키워드	유사도
1	참치 플레이크 (tuna flakes)	0.4018	11	치킨 크리에이션 (chicken_creations)	0.3483	1	해조류 스낵 (seaweed_snack)	0.5044	11	렌가테이(rengatei)	0.3158
2	크래커(cracker)	0.3980	12	타이 칠리(thai_chili)	0.3483	2	고추장 (gochujang_chili)	0.3980	12	김밥(kimbap)	0.3093
3	칠리(chili)	0.3965	13	선(line)	0.3463	3	김밥(gimbap)	0.3490	13	고추장 (pepper_paste)	0.3044
4	수산물(seafoods)	0.3959	14	파우치(pouches)	0.3461	4	밥_김치(rice_kimchi)	0.3340	14	주먹밥(rice_ball)	0.3038
5	태평양(pacific_sea)	0.3729	15	참치 파우치 (tuna_pouches)	0.3406	5	매운 소스 (spicy_gravy)	0.3301	15	스팸계란 (spam_eggs)	0.3032
6	참치 오일(tuna_oil)	0.3556	16	주요 기업 (key_players)	0.3399	6	참기름(sesame_oil)	0.3226	16	유제품 계란 (dairy_egg)	0.3022
7	감염(infusions)	0.3551	17	제품 포트폴리오 (product_portfolio)	0.3378	7	김(nori)	0.3215	17	스낵(snack)	0.3012
8	타이유니온 (Thai_Union)	0.3551	18	브랜드(brand)	0.3369	8	오니기리 쌀 (Onigiri_rice)	0.3195	18	쌀 녹말(rice_starch)	0.3006
9	온라인 채널 (online_channels)	0.3546	19	제품군 (product_mapping)	0.3353	9	단무지(danmuji)	0.3169	19	파(scallions)	0.3005
10	수산물 시장 (seafood_market)	0.3515	20	타임(thyme)	0.3350	10	김말이(gimmar)	0.3168	20	다시마(kombu_kelp)	0.2989
참치						김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글로벌 수산식품 출시 트렌드, ‘냉동’, ‘편의’, ‘안전’ 중심

■ 글로벌 수산식품 출시는 냉동보관 식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 2010년~2020년 3월 동안 수산식품 신제품 출시는 냉동보관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증가함
- 동기간 북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출시된 수산식품 중 냉동보관 식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북미는 냉동 간편식, 동남아시아는 냉동 손질 수산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동북아시아에서는 국물용 또는 요리의 원재료로 건조 수산물을 활용하는 식문화의 영향으로 상온 보관 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하고 신선한 식습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유럽에서는 냉장 보관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장기보관식품,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냉동 가공식품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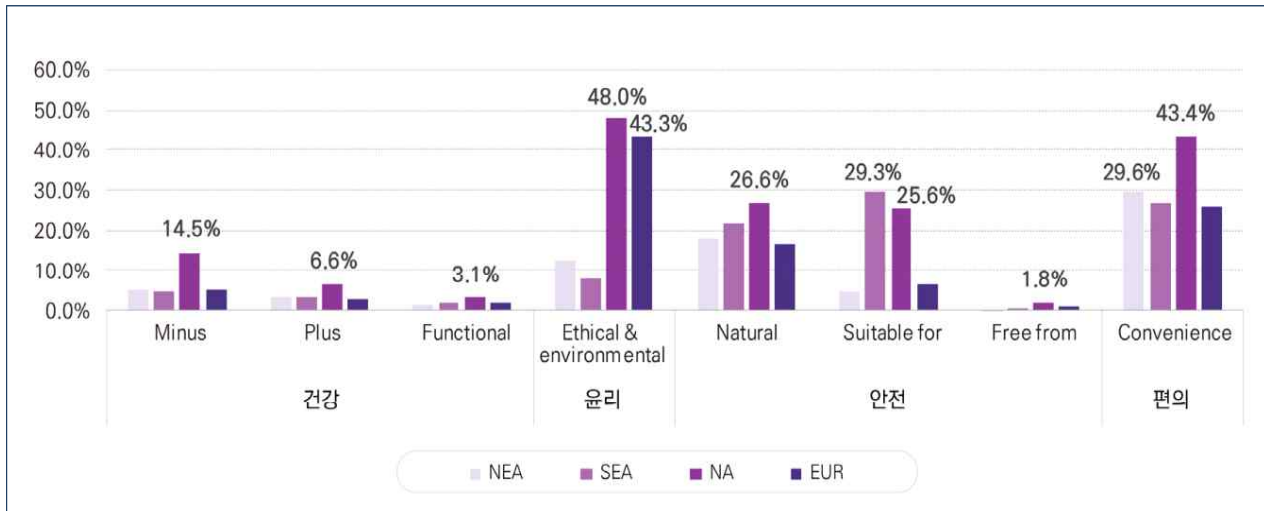
■ ‘안전’과 ‘편의’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키워드

- ‘안전’과 ‘편의’는 수산식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지역별로 ‘첨가물 및 보존제 미첨가(No Additives/Preservatives)’를 비롯해 자연적 특성(Natural)을 강조한 소구점과 ‘간편(Ease of Use)’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편의(Convenience) 소구점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세부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전자레인지 조리 식품의 성장세가 관찰되는 한편, 유럽과 북미에서는 포장의 편의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할랄의 비중이, 북미에서는 종교적 이유에 더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코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주의 문구를 활용하거나 특정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프리 프롬(free-from)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 필수 요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윤리’

- ‘지속가능성’, ‘재활용’을 비롯해 윤리와 관련한 키워드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관련한 키워드나 인증을 활용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친환경 포장, 북미에서는 동물 복지에 관한 키워드도 중요한 쟁점임

그림 5. 글로벌 수산식품 신제품의 소구점별 활용 비중



주 :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에서 2010년~2020년 3월에 출시된 신제품 중 관련 소구점을 활용한 제품 수의 비중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세분된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선진화되고 있는 소비규범 대응 필요

■ ‘가격’, ‘품질’ 중심에서 ‘윤리’ 등 가치 소비 관심 증대

- 대륙별 수산식품 소비 시장은 우리나라와 수산식품 소비문화가 유사한 글로벌 최대 ‘동북아시아’ 수산물 소비 시장, 수산식품 소비 방식에 변화를 보이는 잠재성을 지닌 ‘동남아시아’ 소비 시장, 다양한 가공 방식을 활용하는 안정적 ‘북미’ 수산물 소비 시장, 선진화된 소비규범과 세분된 소비 시장을 갖춘 ‘유럽’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륙별 상이한 소비 시장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유럽과 같이 시장이 세분되어가고 있으며 소비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성 등의 ‘윤리’ 소구점은 초기 유럽을 중심으로 강조되었으나, 현재에는 북미, 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필수적인 대응 요인이 되었음

그림 6. 대륙별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동북아시아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동남아시아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소비 구조 수산물 생산 1위, 수산물 수출 1위, 수산물 수입 2위,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최대 시장	소비 키워드 트렌드 수산물은 주요 건강식품, 초밥, 국은 주요 소비 형태	제품 출시 트렌드 반찬류, 부식류 및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조리가 간편한 제품이 활발히 개발	소비 구조 수산물 생산 2위, 수산물 수출 2위, 수산물 수입 4위, 최근 수산물 소비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잠재 시장	소비 키워드 트렌드 수산물은 주요 건강식품, 샐러드, 국은 주요 소비 형태, '향'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	제품 출시 트렌드 종교적 특성, 최근 손질 수산물, 간편식, 지속가능한 제품의 성장세, 상온보관 제품 중심에서 냉동·냉장보관제품의 비중이 증가
수출 전략 수산물을 섭취하는 방식이나 선호하는 여충이 유사한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여충 및 가공 방식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필요			수출 전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선도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요구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유럽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소비 구조 수산물 생산 4위, 수산물 수출 4위, 수산물 수입 3위,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적 시장	소비 키워드 트렌드 수산물들은 건강식품이자 식이요법 대상, 튀김 샐러드는 주요 소비 형태, 피자, 파스타 등도 상위권	제품 출시 트렌드 다양한 유형의 간편식 개발, 다양한 가공 및 포장 방식, 건강·윤리·안전·편의 마케팅 소구점 적극 활용	소비 구조 수산물 생산 3위, 수산물 수출 1위, 수산물 수입 1위, 언어를 중심으로 높은 무역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소비 키워드 트렌드 수산물들은 건강식품이자 식이요법 대상, 튀김 샐러드는 주요 소비 형태	제품 출시 트렌드 높은 신선냉장보관 제품 비중 지속가능한 생산, 친환경 포장, 유기농 등 선진화된 소비규범 선도, 고부가가치 인증 제품 선호
수출 전략 북미 지역의 수산 가공 및 포장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혁신적인 수산 제품을 개발하고, 북미 소비자가 주목하는 '해양포유류', '코스', '고단백' 등의 키워드 적극 활용 요구			수출 전략 원재료 조달,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선진화된 소비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건강하고 신선한 식사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호를 공략하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		
북미			유럽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잠재 시장 발견,' '수요기반 제품 R&D', '고도화된 소비규범 충족'이 우선

■ 잠재 수출 시장 발견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별 소비 동향 파악 필요

- 개발도상국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수산물 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는 패턴이 발견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특별한 수요 및 공급 혁신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인 소비 동향(국가 및 품목) 파악을 통해, 잠재성 있는 수산물 소비 시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안전'·'가공'·'편의'를 비롯하여 품목별 특성에 기인한 수요기반 제품 R&D 요구

-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 R&D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건강한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산물만의 특성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됨

- 글로벌 수산기업은 이미 ‘건강’을 중요 시 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첨가물 및 보존제 미첨가(No Additives/Preservatives)’를 강조하는 마이너스(Minus) 소구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산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단백질’, ‘오메가3’를 강조하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유럽·북미 지역에서는 수산식품의 영양학적인 성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을 수산물 소비를 연관 짓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제품 개발 역시 필요함
- 이 외에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품 개발에 있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각 품목마다 연관되는 소비 특성이 다른 만큼, 개별 품목마다의 특성을 고려할 홍보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함

■ 고도화되고 있는 수산식품 소비규범 충족을 위한 노력이 요구

- 전 세계적으로 수산식품의 안전, 윤리,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정책 기조가 도입되고 국가별로 구체적인 규정을 고안하는 등 높아지고 있는 수산식품의 소비규범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더해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윤리,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및 마케팅 소구점을 적극 활용하고, 아직 수산식품에서의 활용 비중은 미미하지만 최근 소비자가 주목하고 있는 ‘비건(Vegan)’, ‘프리프롬(Free-from)’ 등의 문구를 적극 활용하는 소구점 방법을 고민해야 함
- 해외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으로 알려진 ‘채낚기(Pole and Line)’를 브랜드화한 제품⁷⁾, 생산자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신뢰도를 확보하는 제품⁸⁾, 비건을 강조한 김스낵⁹⁾ 등 고도화된 소비규범에 맞춘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된 수산식품 소비규범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고안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7) 크로거(Kroger)

8) 피쉬 테일즈(Fish Tales)

9) 잇수(Itsu)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가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햇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bunker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다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 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과제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제168호	해양공간계획·실행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	2020.04.29.
제169호	코로나 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2020.05.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6.
제171호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2020.6.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6.
제171호	포용과 혁신중심의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2020.6.22.
제172호	COVID-19에 따른 선원수급 및 선박검역 대책마련이 시급	2020.07.03.
제173호	포클랜드 입어 정책 변화 예고, 국내 오징어 수급 대응 방안 마련해야 - 2020 한중남미수산물포럼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	2020.10.30.
제174호	공유경제, 청년취업인의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넘는 사다리가 되어야...	2020.11.06.
제175호	한-러 ‘북극협력 2.0’ 시대를 여는 新 북극전략 수립 필요	2021.02.02.
제176호	글로벌 수산물 소비 구조 변화 고려,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2021.02.16.

URL: <https://www.kmi.re.kr/>